

# 황룡사 창건기와 검토

## - 중문지 발굴조사 성과를 중심으로 -

김 유 성(金 有 城)<sup>1)</sup>

목차

- I. 머리말
- II. 중문지 재발굴조사 현황
- III. 중문지 출토 고식기와의 편년
- IV. 황룡사 창건가람 기와 검토
- III. 맺음말

### I. 머리말

황룡사 중문지에 대한 재발굴조사가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진행되었고 그와 관련하여 보고서가 발간되었다(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2018). 그리고 황룡사 남쪽담장 외곽 유적에서 황룡사대지조성과 도로 유구가 조사되었고 이 또한 보고서가 발간되었다(신라문화유산연구원 2018). 이 두 유적에서 출토된 고식기위를 실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황룡사 창건기 기와에 대한 검토가 가능하다고 판단되었다. 이에 중문지의 재발굴조사 성과를 기초로 신라 최고식 평기위를 3가지로 구분하고, 유구의 중복관계를 통해 황룡사 고식기와의 편년설정을 시도해 보고자한다. 이렇게 편년 설정된 신라 최고식 평기와의 제(諸)속성을 기초로 하나에 군(群)을 이루는 황룡사 창건관련 막새기위를 함께 제시해 보고자한다.

황룡사의 발굴조사 보고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고식 평기위는 전무한 실정으로 최근 중문지의 재발굴조사를 통해 출토위치를 알 수 있는 고식 평기위가 보고되었다. 이중 창건가람의 중문을 선행하는 부석과 수혈유구에서

---

1) 신라문화유산연구원 연구원

출토된 신라 최고식 평기와, 창건중문과 중문중문에서 출토된 고식기와를 근거로 황룡사 창건가람 기와에 접근해 보고자한다.

지금까지 황룡사의 고식기와는 발굴조사 보고서에서 보고된 수막새를 중심으로 가람변천에 근거하여 편년설정 되었다. 근래에는 황룡사 주변유적의 고식기와 출토사례가 늘어나고, 수막새의 접합기법 연구성과와 평기와의 성형틀 양상에 기초한 편년설정이 진행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황룡사 고식기와의 연구성과에 기초하여 중문지 출토 고식기와를 살펴보고, 중문지 유구의 중복관계와 유물의 제(諸)속성을 참고하여 가람변천과 관련성이 큰 중문 출토 고식 평기와의 편년을 우선 시도해 보겠다.

황룡사 가람변천은 3~4차례 진행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중 본 검토과정에서 다루고자하는 창건기는 문헌기록을 근거로 553년에서 569년 혹은 중금당의 조성시기인 584년까지로 볼 수 있다. 황룡사 중문은 재발굴조사 성과를 참고할 때 가람변천을 반영하고 있는데 창건가람은 창건중문을 통해 재검토할 수 있다. 따라서 중문지에서 출토된 고식 평기와의 편년설정과 현재까지 연구성과를 통해 제시된 황룡사 창건 관련 기와를 참고하여 황룡사 창건기 평기와를 검토하고 더불어 한 군(群)을 이뤄 사용된 막새기와를 유추해 보고자한다.

이와 같은 검토는 지금까지 황룡사의 창건과 관련된 것으로 추정되는 신라 최고식 평기와는 주로 지표 채집된 자료와 중심곽의 주변에서 출토된 자료에 의존했기 때문에 대체로 그 양상이 불명확하였다. 이번 검토가 이루어진다면 출토양상이 분명한 중문지 출토 고식 평기와를 기초로 황룡사 창건기와가 구체화 될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의 신라 평기와 연구에 기초 자료를 제공할 것이다. 아울러 중문지 유구의 중복관계와 평기와의 여러 속성을 기초로 창건가람과 관련된 신라 최고식 기와류를 제시함으로써 앞으로 황룡사 가람배치 연구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 II. 중문지 재발굴조사 현황

중문은 기존 발굴조사에서 기존 4차례 변천 안이 제시되었다(문화재관리국 문화재연구소 1984). 그러나 중문의 재발굴조사에서 2차와 3차 중문과 관련

된 기초시설이 확인되지 않았으며, 4차 중문은 시기가 다른 중문 건물지 2기가 상하중복되어 있음이 층위적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황룡사의 중문이 표1과 같이 3차례 변천한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표 1. 황룡사 중문 조사 현황

2018년 중문지 변천안		1차 중문	2차 중문	3차 중문
1984년 중문지 변천안		1차 중문	4차 중문	
규모	칸수	정면 3칸×측면 2칸	정면 5칸×측면 2칸	정면 5칸×측면 4칸
	도리칸(m)	6-6.2-6	4.66-4.66-4.66-4.66-4.66	4.7-4.7-4.7-4.7-4.7
	보칸(m)	2.9-2.9	4.08-4.08	2.1-2.1-2.1-2.1
기초기법		독립적심석기초	독립적심석기초	독립적심석기초



도면 1. 황룡사 중문 재발굴조사를 통해 확인된 황룡사 중문 변천 현황도( 국립문화재연구소, 2017, 『황룡사 중문 복원 기본 설계』, p22, 그림 2-1 발췌)

1~3차 중문은 동서중심축을 공유하는 남회랑과 함께 남쪽으로 점차 이격되어 확장되는 양상이다. 기초부의 양상과 출토유물을 근거로 할 때 1차 중문은 창건 중문으로 6세기 후반에서 7세기 전반 이후 조성되어 7세기 전반 경을 전후한 시기에 폐기된 것으로 판단되며, 2차 중문은 중건 중문으로 7세기 전반이후 통일기에 조성되어 고려시대까지 존속한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3차 중문인 최종 중문은 고려시대 조성되어 1,238년 몽고난(고려 고종25)에 의해 소실 될 때까지 존속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사진 1. 창건중문 선행유구(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2018, 『황룡사 복원정비 사업 발굴조사 I -중문·동문지-』, p53 사진 32)

각 중문 건물지는 황룡사의 가람변천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데 창건가람의 정문으로 알려진 창건 중문을 층위적으로 선행하는 부석과 수혈유구가 새롭게 보고되었다. 이 선행유구 내부에서 지금까지 황룡사 창건과 관련된 것으로 연구되어온 통쪽와통제작기법 암키와와 무와통제작기법 수키와, 원통외통제작기법 수키와가 출토됨으로써 황룡사 창건기와를 검토할 수 있게 되었다. 아래에서는 황룡사 창건시점과 관련성이 깊고 출토층위가 분명한 4지

점의 고식시기와를 소개한다.

① 수혈 출토 고식기와 : 미구기와 130 / 암키와 189, 192

- 미구기와 130 : 태토는 극(劇) 미세세사립과 백색 점토 덩어리가 혼합된 점성 강한 점토이다. 점토의 결이 매우 뚜렷하며 공극 없이 수비가 매우 잘 되었다. 무와통제작법으로 만든 수키와로 외면에는 회전물손질흔, 내면에는 회전성형흔이 잔존한다.

- 암키와 189 : 태토는 백색·흑색·갈색 극(劇) 미세세사립과 회백색 점토 덩어리가 혼합된 점성 강한 점토이다. 외면에는 종방향 목판긋기흔이 잔존하며, 요면에는 성글게 짜여진 포목흔과 통쪽흔이 잔존한다.

- 암키와 192 : 태토는 극(劇) 미세세사립과 회색 점토 덩어리가 혼합된 점성 강한 점토이다. 점토의 결이 매우 뚜렷하며 공극 없이 수비가 매우 잘 되었다. 외면에는 선문 단판타날문양이 잔존하며, 요면에는 포목흔과 함께 통쪽흔과 통쪽연결흔이 남아 있다.

② 부석 출토 고식기와 : 토수기와 131, 132, 133 / 암키와 188, 190, 191

- 토수기와 131 : 태토는 다량에 백색 세사립과 소량에 흑색 세사립이 혼입된 점토이다. 백색·흑색·회색 점토 결이 커켜이 겹쳐진 양상이 잘 확인된다. 공극 없이 조밀하게 잘 수비되었다. 외면에는 격자문 단판타날문양과 횡방향 도구조정흔이 잔존하며, 요면에는 포목흔이 남아 있다.

- 토수기와 132 : 태토는 다량에 백색 세사립과 석립, 소량에 흑색 세사립이 혼입되었다. 표면에서 백색 세사립과 석립의 관찰이 용이하다. 외면에는 선문 단판타날문양이 잔존하며, 요면에는 포목흔이 남아 있다.

- 토수기와 133 : 태토는 다량에 백색 세사립과 석립이 혼입되었으며, 표면에서 세사립의 관찰이 용이하다. 백색 점토가 혼입된 양상이 확인되지만 점토 결이 확인되지 않을 정도로 잘 수비 되었다. 외면에는 선문 단판타날흔과 종방향 도구조정흔이 잔존하며, 요면에는 포목흔과 점토접합흔이 남아 있다.

- 암키와 188 : 태토는 다량에 백색 세사립과 소량에 갈색 세사립이 혼입된 점토이며, 점토 결이 잘 확인된다. 외면에는 종방향 도구조정흔과 단부를 중

심으로 횡방향 도구조정흔이 잔존한다. 내면에는 포목흔과 통쪽흔, 단부를 깎기한 흔적이 남아 있다.

- 암키와 190 : 태토는 백색 세사립이 혼입된 점토이다. 외면에는 횡방향 도구조정 후 종방향 도구조정흔 흔적이 잔존하며, 내면에는 포목흔, 통쪽흔, 점토접합흔이 남아 있다.

- 암키와 191 : 태토는 백색 세사립이 혼입되었는데 점토와 세사립이 고르게 뒤섞인 양상이다. 외면에는 승성문 단판타날문양과 횡방향 도구조정 후 종방향도구정흔 흔적이 잔존하며, 내면에는 포목흔, 연철흔, 통쪽흔이 남아 있다.

③ 창건 중문 적심석 내부 출토 고식기와 : 유단식기와 077

- 유단식기와 077 : 태토는 극(劇) 미세세사립과 회색·백색 점토 덩어리가 혼합된 점성 강한 점토이다. 점토의 결이 매우 뚜렷하며 공극 없이 수비가 매우 잘되었다. 연질소성. 외면에는 격자문 단판 타날문양과 물손질흔이 잔존하며, 요면에는 성글게 짜여진 포목흔, 연철흔, 물손질흔이 남아 있다. ‘ㄴ’자로 성형된 단부는 점토를 외면에 덧붙인 후 와도로 성형하였다. 두께는 1.6~1.8cm이며, 단 두께는 0.9~1.3cm 이다.

④ 중건 중문 내 인왕대좌 하부 토심 내부 출토 고식기와 : 수막새 002 / 수키와 171

- 수막새 002 : 태토는 0.5mm 내외의 백색 세사립과 불투명한 세사립(석영), 갈색 세사립(장석)이 혼입되었다. 연질소성. 표면에서 백색과 갈색 세사립이 보일 정도로 세사립의 혼입량이 많다. 문양면에는 유릉육엽 연화문이 있고 범상흔과 도구흔이 잔존한다. 전체적으로 문양의 후육 함이 떨어지고 윤곽이 뚜렷하지 않다. 배면에는 물손질과 지두압흔이 잔존한다.

- 미구기와 171 : 태토와 소성도는 수막새 002와 매우 유사하다. 타날문양은 선문으로 타날흔이 미구부에서 동체부까지 남아 있다. 미구와 동체부는 일체형으로 제작되었으며, 언강이 부분이 90도에 가깝게 꺾여 있고 내면 전체에 포목흔이 잔존한다. 미구부와 언강이 외면에는 회전물손질흔이 잔존한다. 내면에는 포목흔과 합철흔이 남아 있다.

### Ⅲ. 중문지 출토 고식기와의 편년

고식 평기와는 기존에 타날판 크기, 와통형태, 분할방법, 하단 단부내면 조정흔 등은 기준으로 편년되어 왔으며, 타날판 크기가 가장 뚜렷한 속성으로 인정되고 있다.

Ⅱ장에서 소개한 중문지 출토 고식기와는 육안(肉眼)으로 관찰되는 여러 속성 중 태토를 기준으로 크게 3가지로 할 수 있으며, 현재 평기와 연구성과를 반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태토는 아래와 같이 3가지로 구분된다.

A : 극 미세 세사립이 점토와 함께 고르게 혼입된 태토, 수비과정에서 뒤섞인 2가지 이상의 점토 결이 잘 관찰되며 공극 없이 이겨진 점성 강한 점토

B : 다량에 백색 세사립과 석립이 혼입된 점토와 함께 혼입된 태토, 수비과정에서 뒤섞인 2가지 이상의 점토 결이 잘 관찰됨.

C : 백색, 불투명 색, 갈색 혹은 흑색 등 2가지 이상의 세사립이 점토와 함께 혼입된 태토, 점토의 결이 확인되지 않을 정도로 수비됨.

표 2 . 태토 구분에 따른 3가지 고식기와

구분	태토	평기와	막새기와
1군	A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판타날문양</li> <li>- 통쪽와통작법 암키와</li> <li>- 무와통작법 수키와 (추정 미구기와)</li> <li>- 원통형와통작법 미구기와로 미구부를 따로 제작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단식기와 : 통쪽와통작법, 단판타날문양, 외면에 점토를 덧붙인 후 'ㄴ'자로 성형</li> <li>- 고구려계 수막새 072~081</li> <li>- 연화문수막새 082</li> <li>- 연화문수막새 085</li> <li>- 황룡사 대형치미</li> </ul>
2군	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판타날문양</li> <li>- 통쪽와통작법 암키와</li> <li>- 원통형와통작법 토수키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단식기와 : 원통와통작법, 단판타날문양, 두께 3cm 내외로 매우 두꺼움, 단부를 'ㄴ'자로 자름.</li> <li>- 귀면문 수막새</li> <li>- 유릉6엽·8엽 수막새</li> <li>- 분황사에서 확인되는 고구려계 수막새와 백제계 수막새</li> </ul>
3군	B, C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판타날문양</li> <li>- 원통와통작법 암키와</li> <li>- 원통형와통작법 수키와로 토수키와와 미구기와 모두 확인됨.</li> <li>- 미구기와는 미구부와 동체부 일체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단식기와 : 원통와통작법, 단판타날문양, 두께 3cm 내외로 매우 두꺼움, 단부를 'ㄴ'자로 자름.</li> <li>- 귀면문 수막새</li> <li>- 유릉6엽·8엽 수막새</li> <li>- 분황사에서 확인되는 고구려계 수막새와 백제계 수막새</li> </ul>

- 1번 기와군 : 창건 중문을 선행하는 유구 중 수혈에서 주로 출토됨, 황룡사에서 가장 최고식 기와임, 황룡사 창건기록과 줄기초 건물지 연구성과(김유성 2019)을 참고할 때 신궁과 관련된 건물의 흔적으로 볼 수 있음.
- 2번 기와군 : 창건 중문을 선행하며, 선행 수혈 직상에 깔려 있는 부석유구에서 출토됨. 창건 중문의 조성시기와 관련됨.
- 3번 기와군 : 중건 중문 내에 위치한 인왕대좌의 토심 내부에서 출토된 것으로 창건 중문의 폐기기점과 관련됨. 분황사 출토 고식기와와 유사한 특징을 보임.

#### IV. 황룡사 창건기와 검토

본 검토는 중문지의 재발굴조사 성과를 기초로 신라 최고식 평기와를 3가지로 구분하고, 유구의 중복관계를 통해 황룡사 고식기와의 편년설정을 시도하였다. 본 장에서는 이렇게 편년 설정된 신라 최고식 평기와의 제(諸)속성과 연구성과를 기초로 하나에 군(群)을 이루는 황룡사 창건기 막새기와를 함께 제시해 보고자한다.

지금까지 경주 출토 신라 평기와의 연구성과(조성윤 2001; 김기민 2001; 김지영 2016; 정원혁 2016)를 참고(표2 참조)할 때 황룡사 창건기 신라 고식기와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암키와를 중심으로 유와통 제작이 주를 이룸, 주로 통쪽와통작법이 사용됨. 원통와통작법이 생산되기 시작되고 무와통작법이 공존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으나 황룡사 창건기와 중에는 실견하기 어려움. 철면(凸面)에는 선문, 격자문, 승문 단판(單板) 타날문이 잔존함, 불규칙한 물손질과 도구조정으로 정면함, 소지는 점토띠 형태와 널빤지 형태가 함께 사용됨.
- 수키와의 경우 무와통작법으로 제작된 미구기와와 원통와통작법으로 동체부를 만들고 미구부를 토기제작기법으로 만들어 별도로 붙인 미구기와가 주로 생산됨.
- 수막새는 현재까지 연구성과에 의하면 백제계 수막새와 고구려계 수막새가 함께 사용됨.





- 암막새는 토기구연형이 제작된 것으로 보고 있으나 현재까지 황룡사에서 토기구연형이 출토된 사례는 없음, 창건 중문 적심석 내부에서 암막새의 시원형태로 볼 수 있는 유단식기와가 출토된 점으로 보아 황룡사 창건기 암막새는 유단식기와로 유추됨.
- 출토지는 경주시내에서 월성과 흥륜사 그리고 황룡사를 중심으로 확인되며, 생산지유적으로 손곡·물천리유적과 화곡리유적이 있음.

## V. 맺음말

지금까지 황룡사의 창건과 관련된 것으로 추정되는 신라 최고식 평기와는 주로 지표 채집된 자료와 중심곽의 주변에서 출토된 자료에 의존했기 때문에 대체로 그 양상이 불명확하였다. 최근 중문지의 재발굴조사를 통해 출토양상이 분명한 고식 평기와가 보고되었고 이를 기초로 황룡사 창건기와를 구체화할 수 있었다. 황룡사의 창건기와를 검토하는 작업은 앞으로의 신라 평기와 연구에 기초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아울러 중문지 유구의 중복관계와 평기와의 여러 속성을 기초로 창건가람과 관련된 신라 최고식 기와류를 제시함으로써 앞으로 황룡사 가람배치 연구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표 2. 경주 신라 평기와 연구성과

구분	김지영(2016)	정원혁(2016)	김기민(2001)	조성운(2000)	‘신라기와의 편년’(2018)
500	1기 (초현기) 점토대 소지 + 토기성형방법 + 길이 5cm 정도의 단판 타날판 + 원형돌기식 단판연화문 수막새	I 단계 (도입기) 무와통제작법 + 무판(無板) + 회전물손질	I 단계 무와통작법	(도입기) 백제계 신라기와 + 통쪽와통 생산 + 원통와통 생산 + 단판·승문·격자문·사용 타날판 + 초기 형태 미구기와 생산 + 백제계 신라수막새 + 고구려계 신라수막새	김기민 (초창기) 무와통제작법 + 원형돌기식 연화문수막새 + 토기 구연형 암막새 + 6세기 말경 와통제작법 도입
			2단계 무와통작법 + 통한 백제계 제작법 수막새 도입		
550	2기 (발전기) 점토판 소지 + 통쪽와통 사용 + 길이 5cm 정도의 단판 타날판 + 신라화된 단판연화문 수막새	II 단계 (성립기) 유와통제작법 + 단판 타날판 + 불규칙 물손질	3단계 통쪽와통 도입 + 점토판 소지 도입 + 무와통작법 공존 + 일반화된 미구기와	(정착기) 신라식 기와 생산 + 통쪽와통 소멸 + 원통와통 주요 생산 + 중판 타날판과 횡방향 타날 등장 + 미구기와 확인되지 않음 + 신라화된 수막새	정원혁 (과도기) 단판 타날판 + 중판 타날판 + 횡방향의 도구손질 + 6엽 선형 단판 연화문수막새 + 8엽 중판 연화문수막새 + 무와통작법 전통과 새롭게 채용된 기와 제작기술 혼용
600	III 단계 (확산기) 유와통제작법 + 중판 타날판 + 횡방향 도구손질	4단계 원통와통 등장 + 수기와 와통 등장 + 단판 선문 타날판 등장 + 무와통과 통쪽와통의 소량 확인 + 토수기와로 일시적 대체	5단계 완전한 원통와통 + 통일신라만의 주기와 + 전형적인 중판·복판 등의 수막새 + 이전 제작 완전히 소멸		
650		3기 (전성기) 점토판 소지 + 원통와통 사용 + 중판 타날판 사용 + 복판, 세판, 중판형식의 연화문수막새 등장		‘儀鳳四年開土’명	‘儀鳳四年開土’명
679 이후				(확산기) 완전한 생산 신라기와 + 원통와통 사용 + 단판 타날판 소멸 + 중판 타날판 주요 사용 + 수막새 주연에 등장 + 당초문암막새 생산	조성운 (완성기) 신식 단판 타날판 + 기하학문 + 경주 외곽지역에서 장판타날 등장

## 참고문헌

### <사료>

『三國史記』

『三國遺事』

### <단행본>

국립경주박물관, 2000, 『신라와전』 .

국립경주박물관, 2018, 『황룡사』 .

### <논문>

김기민, 2017, 「 I-1. 기본기와의 규격과 제작기법 및 활용에 관한 연구」, 『황룡사 중문와전 및 철물 복원고증연구』 황룡사연구총서15, 국립문화재연구소, pp. 19~48.

신창수, 1987.12, 「삼국시대 신라기와의 연구 -황룡사지출토 신라기와를 중심으로-」, 『문화재』 제20호, 문화재연구소, pp.1~57.

조성윤, 2000, 「경주출토 신라 평기와의 편년 시안」, 경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최맹식, 2002, 「황룡사지 회랑외곽 출토 기본기와 조사연구」, 『문화사학』 제17집, 한국문화사학회, pp.

최영희, 2014, 「신라 고식수막새의 연구현황」, 『황룡사지 출토 신라고식수막새의 연구현황과 검토』 2014년 학술세미나 자료집,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pp.21~42.

### <보고서>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2014, 『황룡사지 신라 고식 수막새 분류일람』 .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2018, 『황룡사 복원정비사업 발굴조사 I -중문지·동문지 등-』 .

문화공보부 문화재관리국, 1974, 『황룡사 발굴조사보고서』 .

(재)신라문화유산연구원, 2018, 『황룡사 광장과 도시 I -황룡사 대지와 후대 유구』 .